

[31차 두산아트스쿨: 미술] 동아시아 3국의 거장들 (정윤아)

10/19 3강.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 백남준

1) 강의 개요

이번 강의에서는 기발한 아이디어와 천재적인 감각, 그리고 쉬지 않는 열정과 노력으로 '비디오 아트'(Video Art)라는 미술사의 새로운 장을 연 백남준(Nam June Paik, 1932-2006)의 예술 세계를 살펴본다. TV, 비디오, 레이저, 인공위성 등 당대의 첨단 테크놀로지와 예술을 접목하고, 천, 지, 인이라는 아시아 철학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개척해낸 그의 작품 세계를 깊이 있게 고찰해 본다.

2) 비디오 아트의 탄생

백남준은 어려서 호기심이 많고, 다방면에 관심이 많았다. 피아노를 배우고 작곡하는 등 특히 음악에 관심이 많았다. 홍콩에서 중학교를 다니는 등, 어려서 해외 경험을 한 그는 동경대에 진학, 미학과 작곡을 전공하였다. 이후 음악 이론 공부를 위해 독일로 유학을 떠났고, 그곳에서 예술가로서의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셉 보이스(Joseph Beuys, 1921-1986)와 존 케이지(John Cage, 1912-1992) 같은 당대 가장 진보적인 예술가들과 운명적으로 만난다. 이들과의 교류를 통해 예술은 혁신적이면서 민주적이고 재밌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그는 자신만의 독창적인 개념을 바탕으로 TV 모니터를 이용한 실험적인 전시를 통해 명성을 쌓기 시작한다. 급기야 1964년에는 미국 예술가의 초청으로 뉴욕에 정착하면서 기술과 예술을 접목, 비디오 아트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다.

3) 비디오 로봇 및 다양한 설치 작품

백남준의 어린아이 같은 천진난만함과 자유로운 영혼은 대담한 실험과 거침없는 표현을 가능하게 했다. 퍼포먼스에 기반을 둔 플럭서스(Fluxus) 운동에서부터 자석을 활용한 TV 이미지 변형, 비디오 합성기 개발과 다양한 비디오테이프 제작, 비디오 로봇 조각과 인공위성 프로젝트들, 그리고 타계 직전까지 탐구했던 컴퓨터 기반 새로운 비디오 이미지 창작에 이르기까지, 백남준은 당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등장 때마다 풍부한 상상력을

바탕으로, 이를 예술 매체로 적극 활용해 기상천외한 작품을 발표하고는 했다. 1964 년에 첫 번째 로봇을 만든 이래, 그는 1980 년대에 비디오 로봇 조각을 본격적으로 제작했다. 1990 년대에는 로봇 이외에 보다 다양한 형태의 비디오 조각 및 설치 작품을 선보였다.

- 작품에 깃든 아시아 사상

백남준의 작품을 관통하는 주요 영감은 아시아 사상과 철학, 음악에 기반을 둔다. 예를 들어,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TV 부처>(TV Buddha, 1974)는 명상을 하는 부처와 그를 실시간 관찰 카메라로 보여주는 영상 속 부처의 공존을 통해 기계 장치가 명상을 심화하는 도구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백남준은 당대 기술이 인간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기술의 잠재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자신의 시선을 관객에게 보여준다.

그는 1969 년 한 인터뷰에서 "'예술과 기술'에서 진짜 이슈는 급진적으로 진화하는 기술과 전자 매체를 어떻게 인간화할 것인가에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 같은 자신의 생각을 다양한 형태의 작품들 속에 구현하였다. 백남준은 늘 "비디오 아트는 자연을 모방하는데, 외관이 아니라 '시간-구조' 측면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는 했다. 다시 말해, 자연의 모든 것이 시간에 따라 변하고 죽음에 이르듯, 비디오 아트 역시 시간 구조 속에 전개되고 끝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의 매체 예술은 당대 가장 앞선 기술을 활용하지만,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아시아의 '천, 지, 인'(天, 地, 人) 사상에 그 철학적 뿌리를 두고 있다.

- 끊임없는 매체 실험

충격적일 정도로 신기하고 재미있는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는 처음 등장한 이래, 전시기획자와 이론가들은 물론 전 세계 컬렉터의 마음을 사로잡아왔다. 1982 년 뉴욕 휘트니미술관(Whitney Museum of American Art) 회고전, 1991 년 쿤스트할레 바젤(Kunsthalle Basel) 전시에 이어 베니스 비엔날레(Venice Biennale)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1996 년, 뇌졸중에도 불구하고 그는 레이저와 컴퓨터 등 당대 새로운 매체에 대한 실험을 멈추지 않았다.

살아생전 마지막 회고전 《백남준의 세계》(The Worlds of Nam June Paik, 2000)는 2000 년 2 월, 뉴욕 구겐하임 미술관(Solomon R. Guggenheim Museum)에서 새 천년을 여는 전시로 기획돼 전 세계 미술계에서 찬탄을 받았다. 새로운 매체에 대한 백남준의 끊임없는 실험의 결과이자 집대성이었던 이 멋진 회고전은 그가 미학적으로 의미 있고, 역사적으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면서 현대 미술사에서 완전히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을 증명해 줬다. 또한 그가 비전통적 표현 매체를 수용하려는 새로운 세대 예술가들에게 정신적 지주가 되었음을 보여준다.